

모일 이유

Reasons To Get Together

히브리서 10:22-2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5월 22일 설교

22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족수양회

오는 주말 가족수양회를 갑니다. 이박 삼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함께 사귀를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합니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한 숟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잔다는 건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올해도 일 때문에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같이 가서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닌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지요. 저도 중,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라 해서 방학 때마다 예배당 바닥에 담요 깔고 자면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신앙훈련이 별 겁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떠들며 노는 게 신앙훈련이지요. 연합 수련회라는 걸 할 때는 좀 멀리 차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대학 때는 캠프 수련회 같은 것도 했는데 늘 보던 친구들인데도 살던 곳 아닌 다른 곳에서 다시 어울리니까 평소에는 못 느끼는 참 특별한 느낌이 생깁니다.

수련회나 수양회는 다들 집 아닌 곳으로 가서 합니다. 집이 아니니 불편하지요. 집 아닌 곳에서 잠까지 자니 이부자리에다가 씻는 문제까지 겹쳐 더 불편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집이 없어서 집 아닌 곳에서 잔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몸도 불편하겠지만 마음이 더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만 집이 있는 사람이 집 아닌 곳에서 머물 때는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오히려 낭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 아닌 곳에서는 그저 편한 것보다 고생이 조금 되는 게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참 고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은 고생입니다. 사실 믿어서 더 고생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고생이 그대로 고생입니다. 좋을 땐 웃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는 이유가 집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머지않아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생이 낭만이고 때로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재미있게 사는 걸 다른 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 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 나그네 인생도 즐겁다 하는 말씀은 지난 가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수양회는 멀리 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이는 거거든요? 주일마다 모여 예배와 사귀를 나누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따로 또 모이는 게 가족수양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이는 일에 대해, 특히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답을 줍니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모인다,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인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했습니다. 문법에서 이런 꼴을 청유형이라 하지요? 우리 같이 하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혼자 가기보다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했는데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았습니까?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 주셨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 죄로 죽어 있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 예수의 피 뿌림을

받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달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보혈 피가 마음에 닿는 순간 살아나 더러운 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더럽구나 하고 깨달는 순간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몸을 씻는 건 마음을 씻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씻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머리도 감겨 주세요 했는데 왜 발만 씻어 주셨습니까? 이미 목욕을 해 온 몸이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요 13:10).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지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어 주셨습니다 (엡 5:26). 그런데 말씀의 물은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전해 준 겁니다. 전해주는 사람 없이 들을 수 없는 게 말씀입니다 (롬 10:14-15). 먼저 씻음 받은 사람이 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으로 씻음을 받은 것부터 혼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같이 받았습시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나아갈 때도 같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니 이미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요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다 예배인데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지요. 시편 가운데 예배 시편으로 가장 잘 알려진 95편이 뭐라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 95:1). “나 예배할래”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함께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예배하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드리니 함께 받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은 나 혼자 받는 게 많습니다. 남이 안 받고 나만 받아야 좋은 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 다 부자면 부자 된 재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일등을 해야 기분이 좋지요. 세상에서 존재감을 느끼려면 그저 상대적인 우월감이 최곱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받는다고 좋을 것도 없지만 사실 혼자서는 받기 어려운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같이 받아야 잘 받고 또 많이 받습니다.

함께 예배한다, 함께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다, 하도 들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데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때가 바로 함께일 때입니다. 함께라야 사람인데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고 그래서 함께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답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벽이라는 게 뭡니까? 인종의 장벽, 남녀를 차별하는 벽이지요. 돈 있다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학교 좀 다녔다고 덜 다닌 사람 무시하던 그런 장벽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장벽은 사실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벽입니다. 내 마음에 있고 저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벽이 주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저 사람 죄도 씻어 주셔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함께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함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주 예수께서 보혈을 뿌려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나와 내가 함께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답게 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갑니다.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4, 18). 누가 우리 둘입니까? 예배소서 본문에서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입니다. 전에는 물과 기름이었는데 주 예수의 십자가가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갈 수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고, 가서 은혜를 더 받습니다.

왜 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죄가 만들었던 벽도 다 없애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라고, 다시 사람답게 되라고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어깨에 힘도 좀 주고 당당하게 가야 맞지요. 그러니 우리가 모이는 것은 사람을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주 예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 주일예배도 그렇지만 가족수양회 역시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같이 산다

우리가 모이는 두 번째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산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안 죽는 것도 사는 것이고 또 삶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또 살아 있는 그 삶을 가장 잘 누리기 위해 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을 든든히 다지기 위해 모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원문에는 “굳게 잡읍시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유형이지요.

혼자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일 때 그 생명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더욱 살아납니다. 함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함께 사귀를 나눕니다. 예배와 사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함께 가진 믿음을 주고받고, 우리가 함께 가진 소망을 서로 확인합니다. 모일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 모닥불을 지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작 하나면 불이 금방 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벽난로를 때면서 여러 해 살펴보니 불은 불 주위에 뜨거운 열기가 유지되어야 계속 탑니다. 장작이 하나만 있으면 불이 만드는 열기가 사방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불도 금방 꺼지지요. 그렇지만 두 개를 나란히 붙여 놓으면 장작과 장작 사이에 열기가 보존이 되어서 불이 안 꺼집니다.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산소공급이 줄어들어 꺼질 것 같은데 너도 잘 타고 나도 잘 탑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붙여 놓아야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모입니다.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지요. 일본에서 시작된 기독교 교파 가운데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에 계시는 반기문 총장님도 이 교파 소속이라고 들었는데 무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반대한다고 안 모이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자끼리 모입니다. 왜요? 그것도 교회니까 안 모일 수가 없거든요. 어제 지구 종말이 온다고 떠들던 해럴드 캠핑도 패밀리 라디오에서 지난 이십 년 가까이 교회를 떠나라는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떠나서 집으로 가라고요? 아니지요. 교회를 떠나 우리 패밀리 라디오로 와라 하는 말이지요. 거기 갔더라면 큰 일 날 뻔했지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됩니까? 순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찬송도 혼자 할 수 있고, 기도도 되고, 설교도 문제없습니다. 옛날에는 설교 테이프를 틀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좋은 설교가 차고 넘칩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올 것 없습니다. 헌금은요? 전에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되었겠지만 지금은 수표 한 장 보내면 됩니다. 헌금을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먼 길 가느니 그 돈까지 아껴서 헌금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입니다. 왜요? 혼자서도 잘 하지만 혼자 하는 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 우리 빛을 삼키려 달려드는 것처럼 세상의 냉기가 우리 불이 타오르지 못하게 열기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열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사람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하라 하십니다. 지금 주위를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인사도 좀 하시고요. 나와 함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더 사람답습니다. 저 사람들도 내가 여기 같이 있어 더욱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집니다. 그걸 알고 함께 찬송을 부르니 제대로 된 찬송이 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함께 들어야 제 맞입니다.

혼자 있으면 말씀대로 조금 해 보다 쓰러집니다. 같이 있어야 안 넘어지게 붙잡아 줍니다. 혼자 있으면 쓰러져 못 일어나지만 같이 있으면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넘어지는 일은 없지요. 그러니 내가 넘어질 때는 저 사람이 세워주고 저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손 내밀어 일으켜 줍니다. 혼자 하면 엉뚱한 길로 가지만 함께 손에 손 잡고 걸어가면 다 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 3:13). 서로 권해야 됩니다. 설교 듣고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곳은 설교뿐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써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귀도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 이름도 “예배와 사귀”로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새 생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죽었다고 다 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실 때는 죽은 듯 목숨만 이어가다가, 그러니까 연명하다가 천국에나 겨우 들어오라 하신 건 아니겠지요?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았습니다. 산 건 움직입니다. 마음껏 움직여야지요. 그 움직임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한 주간 도우신 미쁘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함께 가진 믿음과 소망을 서로 주고받아 든든하게 지키려고 모입니다.

같이 사랑한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도 원문은 “서로서로 격려합시다” 해서 세 번째 청유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값진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우리 몸을 깨끗이 씻어주신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것도 사랑 하합니다. 복음도 압축하면 사랑이지만은 우주의 비밀과 우주의 역사도 압축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니까? 혼자 못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만 안 만드시고 둘을 만드셨습니까?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를 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또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드셨지요. 함께라야 사람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답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일 때는 사랑을 받지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면 잘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게 뭘지 잘 모릅니다. 사랑을 제대로 느끼려면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 아닙니까? 부모가 되어 사랑을 비로소 압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받기만 해서 불완전합니다. 받은 내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받기만 해도 된다면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받으면 될 겁니다.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 우주의 비밀도 꿰 수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 사랑이 없으니 엉터리입니다. 수도사, 신비가, 예언자, 그 어떤 심오한 이름도 사랑이 아니라면 다 엉터리입니다. 주어야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주어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삶을 섞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삶이 서로 엮이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가서 옆 사람 이름도 모르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오면 그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삶으로 엮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도 소그룹 모임을 반드시 갖습니다.

왜 모입니까? 서로 돌아보려고 모입니다. 사랑하려고 모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더욱 사랑하자고 권하여 더 사랑하려고 모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완성시켜 가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요일 4:12).

열심히 모이자

제가 벽난로도 많이 연구했지만 민족성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반면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안 믿는 데는 민족성의 영향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은 잘 모이지요. 모여서 술도 잘 먹고 노름도 잘 하고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일도 같이 잘 합니다. 잘 모여야 되는 게 교회인데 우리 겨레가 모이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많이들 믿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 안 끼치는 걸 미덕으로 삼다 보니까 모이는 걸 꺼려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도 제대로 못 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웃기지요. 남에게 폐 안 끼치는 맛에 산다는 그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이웃에게 가장 폐를 많이 끼친 나라 아닙니까?) 혹 사회학이나 인류학 하실 분들 있으면 나중에 이걸 좀 연구해서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모이지 마라 하니 마귀를 따르는 거지요.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 귀에 속삭입니다. 모이면 죄 지은 게 드러나고, 내 약점을 사람들이 알아서 수군거리고, 모이면 이웃 사랑 때문에 헌금도 내야 되고, 모이면 신나게 놀 시간도 줄어들고, 모이면 내 사생활에 간섭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여간 온갖 이유를 대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야 수도 없이 많겠지만 목표는 하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다 잃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냥은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하자 하였는데 그 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언제라고 정해진 날도 아니지만 분명한 건 날마다 가까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래서 그 날까지 부지런히 사랑하여 달란트를 남기라 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천국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시 133편)? 그래서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걸음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길에 비겼습니다 (시 84편).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걸음, 또 가족수양회를 하려고 두 시간 운전해 가는 그 길 역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의 축소판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복잡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으니 낭만 아닙니까? 오는 주말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재미를 다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

대하면서 다 함께 준비하십시오. (권수경 목사)